

압도적 존재감 K-푸드, 민관이 함께 할랄 시장 수출 장벽도 넘는다

- 정부-기업, K-푸드 할랄 시장 등 해외진출 확대 전략 논의
-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통한 현장 중심의 정책 지원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이하 '재경부')와 함께 5월 13일(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aT센터에서 할랄식품을 포함한 K-푸드 수출 확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26.1.9.)의 후속 조치로서, 초혁신경제 15대 선도프로젝트의 주요 과제인 K-푸드의 유망시장 진출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농식품 수출기업과 관계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K-푸드 수출 확대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26.5.13.(수) 10:00~11:00,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aT센터
- 참석자 : (정부) 재경부 혁신성장실장,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등
(민간관계기관) 한국이슬람교(KMF) 등 할랄 인증기관 CJ제일제당 삼양식품 농심 서울우유 등
농식품 수출기업 및 한국식품연구원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전 세계인의 관심을 받고 있는 K-푸드 수출액은 작년 104억 달러(전년 대비 4.3% 증가)를 달성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고, 올해 1분기 수출액은 25.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하였다.

참석 기업들은 할랄 시장을 비롯한 권역·시장별 유망 품목 발굴 및 신규 시장 진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K-식품은 콘텐츠를 보며 즐기는 경우가 많아 콘텐츠와 연계한 홍보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할랄 시장의 특성상 원료 및 가공식품에 적용되는 할랄 인증이나 물류 관련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재경부 민경실 혁신성장실장은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K-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의견과 현장의 고충을 듣고, 범부처·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윈스톱 K-푸드 수출지원허브*」를 통해 수출 과정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K-푸드 수출 전 과정(관세, 통관, 외환, 인증 등)의 애로 해소를 위해 공공 및 민간 전문가를 연계해주는 온-오프라인 서비스

특히, 정부는 「글로벌 차세대 K-푸드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온라인 K-할랄식품관, 농식품 수출바우처 지원,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지원 등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글로벌 소비 트렌드와 기술산업 변화를 반영한 차세대 수출 유망 품목을 선제 발굴

농식품부 정경석 식품산업정책관은 “중동 전쟁에도 불구하고, 중동 등 유망시장 공략을 위해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를 통해 기업의 해외인증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물류창고 이용 등 물류 관련 지원을 강화하면서, 중장기 할랄 소재·보존 기술 연구 개발과 전문인력 교류 강화 등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재경부 민경실 혁신성장실장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준 기업들에게 고마움과 격려를 표하면서, “오늘 논의된 정책과제들은 현장의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로 효과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며 간담회를 마무리하였다.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	책임자	과 장	강효주 (044-201-2171)
		담당자	사무관	김태규 (044-201-2179)
	재정경제부 초혁신경제추진단 기획총괄과	책임자	부단장	염경운 (044-215-8870)
		담당자	사무관	임근일 (044-215-8872)
			사무관	오진봉 (044-215-8875)